

투데이 칼럼

투표를 통해 정치를 바꾸자

지금 대한민국 사회의 가장 큰 관심거리는 뭐니 뭐니 해도 4.13 총선일 것입니다. 야권분열에 의한 새누리당의 압승일 것이냐? 정권심판에 대한 야권의 승리일 것이냐? 이번 선거는 이것 외에도 중요한 몇 가지의 의미와 지표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첫째, 2018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 대한 예측가능한 선거의 의미가 있습니다. 얼마 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육체부쟁'('직인파문'으로 보아야 하자)을 보아도 이번 선거의 결과가 차후 대통령 선거에 어떠한 영향과 힘으로 작용하느냐는 볼 보듯 뻔한 내용일 것입니다. 둘째, 선거에는 반드시 그 결과에 대한 농공행상을 따지게 되고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총선의 결과가 여당의 압승으로 끝나든지 야권의 선전으로 끝나든지 그 결과에 대한 책임과 수혜가 분명히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는 이번 선거가 끝나면 어쨌든 대표직을 물러난다 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대표 역시 그 결과에 따라 거취 문제에 연연해하지 않겠다고 했고, 야권분열의 책임을 지

고 있는 '국민의당'의 안철수 공동대표 역시 총선의 의석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고 하였습니다. 셋째, 이번 총선의 결과에 따라 제3당의 존립 가능성과 대통령 선거 체제로의 야당합당이 이루어질지 대통령 후보자 야권단일화로 갈지 판가름이 날 것입니다. 대통령 선거 때만 되면 분열된 야권은 합당을 하였고 대통령 후보의 단일화의 판짜기도 전락적인 선거방식의 하나로 활용되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면들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의 '제3지대', '제3당'의 형성과 존립가능성이 관련 포인트가 되고 있

습니다. 사전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면 호남지역에서는 과반수가 넘는 의석을 확보한 것처럼 보이지만 수도권에서의 결과와 과연 그 결과를 받쳐줄 수 있느냐?입니다. 두 번째로는 '진박'과 '비박' 간의 권력투쟁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의 백색으로 갈아입은 유승민 연대의 약진이 예상되고 있으며 김무성이 마지막에 구해낸 이재오 의원과 정종섭 의원 등의 당성이 확실시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야당의 불모지였던 대구에서의 '더불어민주당'의 김부겸 후보의 당선가능성이 점쳐지고 있고 전북에서도 야권분열로 세 번째 도전하는 새누리당의 정운천 전 장관의 약진

도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귀추가 주목되어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투표입니다. 얼마 전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것처럼 투표를 하겠다는 사람들 중 아직도 마음을 정하지 않은 '부동층'이 25% 가량 된다하니 어쩌면 그들에 의해서 선거의 당락이 결정되어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나는 이 지면을 통해서 부동층 유권자들에게 또는 "투표를 하면 무얼 해? 그들이 그놈이지!"라는 식의 정치허무주의를 지향하는 유권자분들에게 강력히 호소 드리고 싶습니다. "혁명이란 단어를 싫어하시죠? 그럼 개혁 합시다. 투표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이며 의무를 다하지 않고 권리를 주장하지 맙시다. 투표를 하지 않고 정치를 비난하지 맙시다.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며 새로운 물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정치개혁과 세상을 바꾸는 일은 사람을 바꾸고 정치내용과 정책공약을 성실히 실천하여 바꿀 수 있으며 바꾸어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투표를 통해 정치를 바꾸고, 투표를 통해 세상을 바꿉시다!



정상도 (사)황실문화재단 사무국장

독자제언

민간조사업 도입시 효과 크다

민간조사(Private Investigation)는 타인의 의뢰를 받고 적법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일을 수행 하는사람을 민간조사원(Private Investigator) 이라고 한다. 민간조사업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2가지 측면에서 찾아볼수 있다. 첫째는 국가가 공공인사는 민간조사업체를 이용할수 있다. 세 번째는 민간조사원은 전문 직업인으로서 가치를 인정 받을 수 있다. 민간조사업이 도입되면 전문 직업인으로서 합법적으로 민간조사업무를 할수 있게 되므로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직업선택 자유를 통한 자아실현과 행복추구 등 헌법적 가치 실현에 도움이 될수 있다는 것이다. 국가,사회적 측면에서는 첫 번째 일부 심부름센터 등의 불법행위를 근절할수 있다. 두 번째 고용창출 및 민간조사 관련 산업을 육성 할수 있을 것이다. 민간조사업 도입시 약 15,680명

의 일자리 및 1조2,720억원 규모의 경제적 효과 창출이 가능 하다(경찰청 자료). 경찰력의 낭비를 해소하여 사회적인 약자와 서민을 위한 민생 치안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사기,고소율85% 정도가 형사사건이 아닌 단순채무불이행 등의 민사사건이며, 이러한 사건들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불기소 처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의 경우 형사고소 당하는 사람이 인구10만명 당 13명 인데 비하여, 우리나라는 732명에 이른다. 통계자료를 볼 때 민사사건등 각종 피해자에 대한 효과적인 권리구제수단이 미흡함으로 인해 형사사법시스템의 과부하를 초래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그러므로 국가기관이 개인하기 어려운 개인의 권익영역을 민간조사업이 담당하게 된다면 경찰은 본연의 민생치안 활동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어 사회적 약자와 서민을 위한 치안서비스는 더욱 강화 될 수 있을 것으로 민간조사업 도입의 필요성이 강조 되고 있다. 배종규 원안경찰서 서학파출소팀장

독자제언

학교폭력 당했을때 도움 적극 요청해야

매년 우리나라의 3-4월은 청소년 학생들의 신학기가 시작되며, 학생들은 새친구 또는 새학교에서 전혀 다른 학교생활을 적응해야만 하는 시기이다. 이로써 청소년 학생들 간의 서열다툼이 나타나기도 하며, 이로 인한 학교폭력이 증가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따라서 부모는 내 아이가 학교에서 잘 적응해 나가는지, 또는 왕따를 당하고 있지 않은지를 파악하고 학교 경찰청 청소년관련 기관에서는 학교폭력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심을 지켜봐야 한다. 학교폭력 유형 중 '모욕·욕설'은 언어폭력에 해당하고 인터넷이나 스마트폰과 SNS를 이용한 비방, 욕설, 집단 따돌림은 사이버폭력에 해당하며, 이외에도 돈과 물건을 빼앗거나 심부름을 시키는 행위, 장난이라며 투박 치는 행위들도 학교폭력이다. 피해의 정도가 미미하다거나 아이에게 불이익이 오진 않을까 걱정하여 조용히 지나가는 분위기도 많은 것도 사실이다. 겉으로 보이는 피해 정도가 미미하다고 하더라도 피해학생이 분노·불안 등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학교폭력으로 보아야 하고 적극적으로 심

리치료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학교폭력은 여타 범죄와 달리 가해자 상당수가 사리분별이 되지 않아 무엇이 잘못인지를 모르고 자신의 행동을 무용담처럼 자랑하는 일도 있고, 이것을 부러움의 대상으로 보는 학생들도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익산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은 학교와 청소년 밀집지역인 영등동 학원가 일대 등에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캠페인과 범죄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필요시 담당학교폭력경찰관에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학생들이 피해를 당했을 때 안심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대처할 수 있는 대화창구와 환경이 조성된다면 비로소 학교는 학생들이 안심하고 자신의 미래와 꿈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즐거운 공간이 될 것이며 학교, 청소년관련 기관에서 학교폭력에 관심을 갖고 예방활동에 더욱 더 동참하고 관심을 갖는다면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을 한층 줄일 수 있고, 가해학생들의 잘못된 인식도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연보배익산경찰서 평화지구대 순경

사설

지역발전이 중심 주제가 돼야 한다

지역발전이 항상 중심 주제가 돼야 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지역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총선이 코 앞이라서 누가 당선되고 어느 당이 승리할지 그쪽에만 모든 관심사가 몰입돼 있는데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역발전이 항상 중심 주제가 돼야 한다. 그 래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우리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교해 낙후돼 있다. 발전하고 있다고는 하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체 비교일 뿐이다. 다른 광역 시도에 비해 뒤쳐져 있음을 알아야 한다. 전북도는 그것을 늘 생각해야 한다. 지역발전이 항상 중심 주제가 돼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지역 발전을 도모한다고 말할 수 없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적했던 것을 또 언급하거니와 우리 전북 지역의 발전 보폭이 너무 좁다. 다른 지역이 보여주고 있는 것에 비하면 기본 좋은 모습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 특별히 짚어볼 것이 있다. 지역의 미래를 이끌 새로운 대형 프로젝트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 그 대형 프로젝트 사업이 개발되지 못하고 있는데 그 까닭을 물어보지 않을 수 없다. 전북도

고위 관계자들과 브레인들의 책임이 막중하다. 지역의 발전을 견인하는 이들은 비상한 각오를 다져야 한다. 지역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자부심만으로는 부족하다. 뛰고 또 뛰어야 한다. 뛰지 않으면 도민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없다. 무슨 일이고 성취를 위해서는 진취적인 행보를 보여야 한다. 그리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명분보다 실리를 선택해야 한다. 다시 말하거니와 지역발전이 항상 중심주제가 돼야 한다. 전북도는 미래를 약속하는 사업이 과연 몇 개나 되는 지 생각해볼 일이다. 새만금사업 말고는 다들 고만고만한 오늘이라서 하는 말이다. 그리고 새만금사업도 그 진척이 너무 느리다. 그러므로 전북도는 저번에 공표했던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20년까지 1조8천억 원을 투자해 국내 탄소산업의 중심지로 키우겠다고 했던 거 말이다. 그걸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이쪽의 바람과는 달리 정부의 주무부처는 미온적인 반응이라서 말이다. 전북도는 그들을 설득하고 지원을 끌어내는 작업을 꾸준히 보여 주었으면 하는 바이다.

학교 주변 정화에 신경써야

학교 주변 정화에 신경을 써야 했다. 도내 어떤 학교들은 주변의 환경이 좋지 않다. 학교 주변 정화는 새학기 때만 할게 아니다. 그래서는 면학 분위기 조성이 잘 될리 없다. 학교 주변 정화에 항상 마음을 두어야 한다. 학생들의 생활 안전을 위해서도 학교 주변 정화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일선 학교 교사들은 물론이고 교육계 인사들도 자기 자녀들의 일처럼 나서야 했다. 학교 주변 정화 작업은 꾸준해야 한다. 새학기 때 한두 번 해가지고는 어렵 턱도 없다. 지금도 학교 주변에는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를 망치는 유해업소가 적지 않다. 전북 경찰이 저번에 합동 단속을 벌인 결과 많은 유해업소를 적발한 걸 보아도 그걸 알 수가 있다. 그런 유해업소들이 초등 학교나 중등학교 인근에서 성업 중이라면 문제가 있다. 미성년은 성년과 구분이 돼 마땅하다. 대학교 주변처럼 돼서는 안 된다. 는 이야기이다.

다시 말하거니와 학교 주변 정화는 꾸준해야 한다. 학교 주변을 늘 정화되고 인돈돼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술집이나 성매매가 의심되는 그런 업소들만이 아니다. 학생들에게 사행심을 부추기는 업소들 말이다. 학교 주변에 사행심을 조장하는 게임점이 많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학교 주변이 어지러우면 학생들이 차분히 공부에 전념할 수가 없다. 자제력이 약한 학생들은 악영향을 받기 마련이다. 그래서 여기주고 싶은 말이다. 도교육청과 일선 학교들은 학부모의 입장에서 학교 주변 정화를 말해야 한다. 단속에 나설 경우 경찰청 당국도 그 점을 명심해야 한다. 학생들의 학업 분위기를 진작시켜 마땅한 이때, 학교 주변이 어지러워서는 곤란하다. 그러므로 기성세대들은 학생들을 자녀처럼 여기고 학교 주변 정화에 열과 성을 다해야 한다. 지금 그럴 의지가 있는지 다들 확인해 볼 일이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 전주매일